

가금현 칼럼

오성환 당진시장, 소통 의지 있는가



가금현 발행인

소통을 강조하는 오성환 당진시장이 최근 언론인을 선별 소통하려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그의 소통주장은 헛구호가 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3일 일부 인터넷신문 기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지려고 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본인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발돼 언론인과의 소통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마저 사게 됐다.

문제는 오 시장과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었던 인터넷신문사의 언론인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다.

현재 당진시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몇 개의 그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사 그룹으로 세무서에 정식신고하고 활동하는 '당진시출입기자단'을 뽑을 수 있다.

당진시출입기자단은 당진시의 현안 문제 중 하나인 당진세무서 승격을 기획 보도함으로써 당진시가 당진세무서 승격촉구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당진시의회가 국세청을 방문 당진세무서 승격 건의서를 제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당진시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오성환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힘을 실어줘 당진시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어, 오 시장이 직접 전화로 힘이 된다는 감사의 인사까지 전한 인터넷신문사 기자가 바로 당진시출입기자단을 이끌고 있는 본 필자다.

하지만 이번 오성환 시장과 소통의 자리에는 빠졌다.

그럼 도대체 어떤 언론사 기자가 선택되어 오 시장과의 소통하려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이를 주선한 측은 '당진시에 오래도록 함께한 언론인을 선정했다', '오 시장에게 우호적인 언론인을 선정했다', '차츰차츰 다 돌아가면서 만나려 했다'는 식의 앞뒤 맞지 않는 해명으로 오 시장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2년 차가 되어가고 있지만, 인터넷신문사로 구성된 당진시출입기자단과 단 한 번도 오찬이든 만찬이든 차 타임이든 그 어떤 소통의 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소통을 말하고, 추진하고자 하

는 사업에 힘을 보태 달라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당진시민 대다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오성환 시장만 모르는 것 같다.

스마트폰만 열면 바로 넘쳐나는 인터넷뉴스를 접할 수 있고,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다.

그런데도 인터넷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리고 이번 처음으로 시도하려 한 몇몇 언론인만을 선정하고자 했던 발상 자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진시에 출입하는 지면 신문사 그룹처럼 한 그룹씩 만나듯 인터넷신문사 그룹도 한 번씩 돌아가며 만나 소통하면 된다.

인터넷신문을 열거나 무시했으면 몇몇 언론인만을 선정 만나려 했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오성환 시장이 아무리 잘하려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면 실수도 하고, 문제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들춰내기보다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 기능에 역점을 두다 보니 인터넷신문을 우습게 보았는가 싶어, 이제부터라도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는 비판기능에 중점을 뒀어야 할 것 같다.

사설

교원-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정파·이념 떠난 교육입법 함께 나서달라!

제22대 국회의원 입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며,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정파·이념을 떠나 시급한 보완입법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 제22대 국회는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교원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권을 침해받고 있어 후속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 5법 시행 후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67.5%로 나타났다. 교원 5법 개정은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매주 광장을 메운 교원들의 외침뿐만 아니라 교실 회복을 바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었기에 실현됐다. 따라서 제22대 국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후속 보완입법에 나서는 것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교육계는 제22대 국회를 향해 우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크며 강원도에서는 가정방문 교사를 스토크,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경기도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 정서학대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엄격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조항을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개정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로 즉시 삭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 성,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 무혐의, 무죄로 결정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가해지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제22대 국회만큼은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 국회의사당 정면 여덟 기둥은 팔도를 상징하고, 건물 중앙의 돔 지붕은 민의를 모아 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뜻이다. 당리당락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을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제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보은교육,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고!

2024.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31일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서정관 위원장이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은진)이 지난달 31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보은교육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의 타당성 등을 자문받기 위한 자리로 보은군의원을 비롯한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학생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들이 참석하여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작은학교 어울림 교육활동 운영계획,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계획, 보은지역의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전국적인 협력운동 급감에 따른 보은교육의 나아갈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진행한 서정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은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소통과 협력으로 보은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교육장은 "보은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자문단은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미래 어울림 보은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국 기자

CTN 논단

기업의 수명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기업의 수명은 회사정관으로 3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으로 2~30년 연장, 고령화 사회로 변이되어 100세 시대다.

그렇다면 기업의 수명은 어떠할까? 지난 80년대 이후 1997년 IMF 체제를 거치면서 세계화, 개방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재편이 시작되었다. 30대 재벌 중 16개 그룹이 도산되거나 타 기업에 흡수, 합병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대우그룹, 국제, 쌍용, 진로, 현대, 신동아 등이며 금융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조흥, 한일, 상업은행, 지방은행인 강원, 충청, 충북 은행 등이 합병되어 사라졌다. 제일은행, 외환은행은 외국은행에 매각되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100대 기업의 변천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 시가총액 상위 100위안에 들었던 국내기업 중 73개가 후발기업에 자리를 내줬으며, 미국의 경우는 81개 기업이 100대 기업에서 탈락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적인 기업인 US스텔, 코닥, 모토로라, GM, 크라이슬러, 리먼브라더스, 토요타, 세이부 그룹 등이 명성을 뒤로하고 사라지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에 20년간 휴대전화 제왕으로 군림해온 핀란드의 최대기업 노키아의 몰락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러한 세계 톱 기업과 국내 재벌 기업의 몰락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의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 한데서 그 이유를 찾는다.

시장을 주도하지 않고 외면한 기업과 기업인,

무리한 사업 다각화, 성공에 대한 자만, 리스크 관리 소홀 등을 꼽는다. 인간의 수명보다 저 짧아져 가는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묘안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기업인의 혜안, 시장의 중심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항상 조직 구성원이 위기의식을 공유케 하는 임을 가진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로 무장된 기업이 계속 기업, 존속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국 기업 중 1위를 지키면서 세계 최우량 기업이기도 한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께서는 10년 안에 삼성도 망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예고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기업 환경에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예견한 것이 아닐까? 공감해 본다. 지난 100대 기업의 변천사가 주는 교훈을 반면교사 해 봐야 할 것 같다. 기업은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연인과 같은 생명체이기도 하다.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은 공평하게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2011년 7월 29일 작성)

만물창고

마음(心)이 곧 경전이다



박순신

CTN·교육타임즈 국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지인으로 받게 되어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게 내용을 보내준 지인은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줄이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을 다시 5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다. 일체유심조를 한자로 줄이면 마음 즉 심(心)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이 곧 경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육체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었으나 인간의 생명과 죽음, 질병과 건강,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마음)임이 더욱 분명해

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사실이며, 지금까지는 인간의 주인은 육체를 위해서 먹었고, 옷을 입어도 육체를 위해서 입었고, 모든 것이 육체를 중심으로 보호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보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질병을 지배하는 정신(마음)의 속성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간직한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마음'이 본 그 자체이며, 이것은 기본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월터 케논 박사는 이미 35년 전에 우리의 정서(마음상태)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중요시했으며, 그 후 많은 대학과 병원에서 신체적 질병치료의 정서적인 면을 중요시해 활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생각하면 육체가 생각하고, 육체의 생각은 바로 마음의 생각을 외적으로 나타내며, 외적으로 나타난 그것이 좋은 것이면 건강한 것이고, 나쁜 것이면 질병으로 질병이란 왜곡된 생각의 표현이며, 질병은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육체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마음은 불건강한 육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면 머리로는 하는 것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한 번 생각하는데 우리의 수백억 개의 미세한 세포까지 동원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는 마음의 미세한 스파이크로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없고, 모든 마음의 병은 욕심에서 나오며, 욕심은 죄악을 낳고 죄악은 사망을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사 미신이라 하더라도 정자나무 아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병이 낫을 수 있고, 병을 낫기 위해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며, 마음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만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자이든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먼저 자신의 생각을 건전하게 바꾸어야 하며, 근심을 기쁨으로, 패배감을 자신감으로, 열등의식을 승리감으로, 후퇴에서 전진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며,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계속하면, 몸의 세포가 바뀌지고, 면역성이 강화되어 질병까지도 물러가는 것이니 마음이 바르고 고요해야 건강한 신체활동이 유지되는 것이라 합니다.

구독자님들 바로 실행에 옮겨서 건강한 삶을 누리리 바랍니다.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
CTN
http://www.ctnedu.kr

교육타임즈

2014년 9월 1일 (주간) 등록번호 충남, 다01378

발행·편집인 가금현 / 편집국장 한성진 / 인쇄 디엠코리아(주)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 010-4222-9009

주소 :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225 엔젤스타워2차 309호
독자서비스센터 : 041-337-1791 / 팩스 : 041-337-1790
E-mail : ctn114@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ctnews.kr

구독료 : 월 1만 2000원 / 자매지 월간충남, 충청탐뉴스, CTN방송

CTN지매지로 별도의 특수주간 신문 등록 및 사업자금이 있으며,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